

특 집

우리 주변국의 낙농육우 현황

북한의 낙농육우 현황

김지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방농업실

북한은 1962년 이래 각종 통계를 거의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발표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대외선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많은 부문에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불가능하며,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판단하여 볼 때 북한의 낙농·육우산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축산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각 부문별 통일후의 전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한다.

북한의 축산정책

북한은 「축산업은 농업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영축산과 협동농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북한의 축산이 국영축산과 협동축산, 농민부업축산으로 나누어져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1954년 이후 농업협동화가 전개되면서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체제로 전환되어 각 농장에서 농업과 축산

을 함께하는 형태가 되었다. 1961년 부터는 부업축산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개인농가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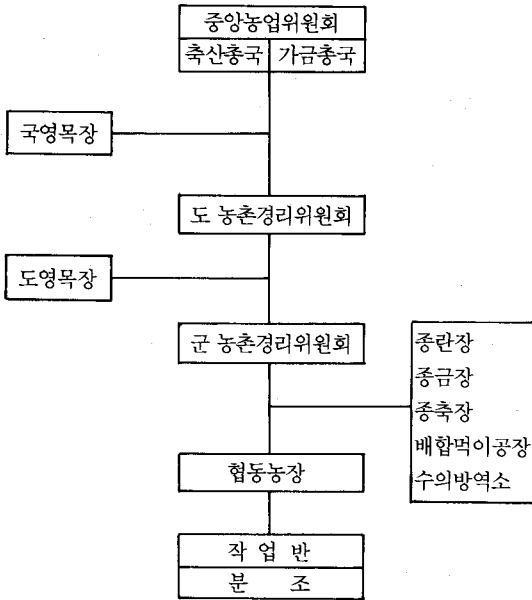
그후 1965년도에 농업위원회에 가축총국과 가금총국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영목장, 종축장 및 사료공장 등의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1971년 11월 제 5차 당대회에서는 각 행정단위, 협동농장 및 작업반, 각 농가 등에 일정수의 가축사육을 의무화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가축사육이 장려제도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인 1987년 이후에는 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사료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비름, 동과, 호박 등 비곡물류의 사료용 식물재배 확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경작용 유휴지 활용강화, 방목지 및 풀산 등 자연먹이기지 조성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축산용 새땅찾기 사업, 10만정보의 비름밭 조성 및 1정보당 200여톤의 사료작물 생산목표 제시 등이다.

북한의 축산행정 및 경영체계

북한의 축산행정 체계

북한의 농촌관리 및 농업경영지도 체계에 의하면 국무원 농업위원회 산하 협동농장 지도총국, 국영농

북한의 축산행정 체계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 12

장관리총국, 과수총국, 양어총국, 가금총국 및 축산총국이 있다. 1965년 농업위원회 개편시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한 축산총국과 가금류를 주로 관리하는 가금총국으로 분류하였다.

중앙단위와 도단위에는 대규모 직영목장, 종축장, 사료공장, 수의방역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량가축의 생산과 배부, 사양관리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군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축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종별로 전문화된 종축작업반을 편성하여 세분화된 경영을 하고 있다. 최하층 행정단위인 리에서는 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소규모 축산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작업반 밑에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축산부문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부업축산으로 돼지, 토끼, 닭, 오리등의 가축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축산전문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축산경영 체계

1963년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를 위하여 축산생산체계를 국영축산, 공동축산 및 농민부업축산으로 분리

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들 세 형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영축산

국영축산은 중앙농업위원회 또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업소인 국영목장과 도영목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축별로 종축장과 사료공장을 배치하여 관리를 전담시키고 있다. 1960년 6월 국영축산장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생산을 자극하고, 1963년 9월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각 축산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 시켰다. 또 1965년 부터는 농업위원회내 축산국과 가금총국을 분리 설치하여 각 축산장에 대한 전문화된 기술행정과 지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앙에 있는 축산 및 가금총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국영목장들을 직접 지도·관리하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며, 도의 축산관리국들은 도영목장들을 직접 지도·관리하면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생산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목장들은 주로 상품화 가능 목축을 사육하는 한편,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수화 우량종축을 각 협동농장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 국영목장은 선진적인 기술과 인력배치로 국영농장에 소속된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생산량은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협동농장보다 생산성이 높은 시범농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영목장의 실적은 협동농장 단위에서 시설이나 인력, 사료자원의 문제등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공동축산

1959년 6월 각 협동농장에 축산작업반을 설치하고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축산을 공동축산이라 한다. 1963년 9월에는 축산작업반에 축산분조를 두고 가축별로(소, 비육돈, 닭등) 사육형태를 전문화하도록 했다. 축산작업반은 규모에 따라 대규모 작업반과 소규모 혼성작업반으로 조직하고 대규모 전문작업반에는 각각 상설분조와 임시분조를 두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협동농장에 이같은 작업반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숫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부업축산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의 축산만 강조하여 오다가 1961년 부터는 부업축산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장려사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71년 이후부터는 농가, 인민반, 학교, 각종 사회단체에 일정수의 가축사육을 의무화시켰던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는 협동농장에서만 농장당 50마리씩 사육하도록 했으며, 돼지는 매농가당 두마리씩 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외 닭, 오리, 토끼, 양, 염소 등이 주요 가축으로서 각 행정단위와 협동농장, 농가등에서 적게는 한마리, 많게는 수백마리씩 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1. 각 단위별 가축 의무사육 두수 단위 : 두, 수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토끼	양	염소
군					4-6만		
리					1만		
협동농장	50					200	
작업반			100-150				
농가		2	5	20	30	1	1
양정사업소			1천-2천				
정미소			200-300				
탈곡장			100				
학교					2,000		
사료청단체					50		

부업축산으로 사육된 것은 협동농장의 소, 농가의 돼지 등 대동물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국가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닭, 토끼, 오리, 염소, 개 등 소동물은 농민시장에서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경영형태의 특징을 <표2>에 정리하였다.

표2. 축산의 경영형태 및 세부내용

경영형태	세부내용
국영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농업위원회의 축산국과 가금총국에서 직접통제 국영농목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
공동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축작업반과 농산작업반에 축산분조 운영 종축작업반 → 역우, 비육돈, 가금 사육 전문화 대규모 전문작업반 → 상설분조, 임시분조 소규모 혼성작업반
농민부업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에 돼지, 토끼, 오리, 닭 사육 의무화

※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 12.

축산물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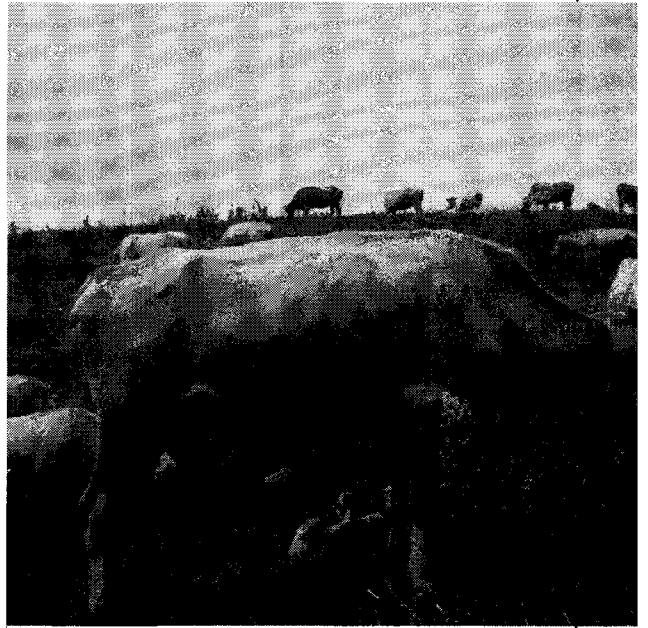
북한의 가축사육 두수를 살펴보면 '91년 기준 소 959천두(유우 8.9천두 포함), 돼지 2,000천두, 가금 200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사육두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의 경우 54.1%, 돼지 39.6%, 가금 26.3%, 산양 71.1%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양의 경우는 300천두로 남한의 3,368두보다 약 100배 정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축산의 저위성은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과 경화 부족에 의한 사료원의 수입이 불가능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경연의 분석에 의하면 90년 현재 북한은 143만톤의 쌀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극심한 식량난과 경작지의 부족은 식량자원과 경합되는 사료자원의 확장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낙농·육우 산업뿐 아니라 모든 축산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때문에 소사육보다는 돼지에 돼지보다는 가금에, 요즈음에는 염소, 양 같이 풀(草)만으로 사육할 수 있는 축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육우산업은 이와같은 현실에서 부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소고기는 역우로서 이용후의 노폐우에서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에서 육류는 김일성 부자 생일, 노동당 창당일 등 명절에 특별배급을 통해 할당되는데,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쇠고기에 대한 소비도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낙농의 경우도 축산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며 앞에서 지적한 문제외에도 방목지 및 경작지의 부족을 이유로 유우사육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대신 콩농사를 잘하여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어 낙농분야의 낙후성은 일반분야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국영목장에서 관리하는 목장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의 중화군 유우목장의 예를 들어보면 90ha의 면적에 총 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모든

평양의 중화군 유우목장의 예를 들어보면 90ha의 면적에 총 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고 한다. 직원수는 174명으로 많은 편이며, Holstein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유우사육두수는 '91년 8,900천두로 남한의 496천두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 조사에 의하면 남한의 연간 1두당 착유량이 5,846kg인데 비하여 2,429kg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양기술면에서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



시설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고 한다. 직원수는 174명으로 많은 편이며, Holstein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유우사육두수는 '91년 8,900두로 남한의 496천두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 조사에 의하면 남한의 연간 1두당 착유량이 5,846kg인데 비하여 2,429kg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양기술면에서도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축산은 김일성의 말에서 정확히 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김일성은 「우리당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특히 가금업에 큰 힘을 넣는 것은 닭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 목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닭은 돼지나 다른 집 짐승들보다 번식율이 빠르고 빨리 자라며 먹이도 적게 먹습니다. 닭은 비교적 기르기도 쉽고 사육을 집약화 할 수 있으므로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닭고기는 돼지고기 보다 먹기도 좋으며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사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축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료공급에 애로가 적은 양계가 축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돼지와 기타 집짐승들의 사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축에 급여할 곡물의 양은 증가시킬 수 없고 이

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모든 가축의 사육에 있어 초식가축을 위주로 사육하라고 하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축산은 농후사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돼지, 가금의 사양부분이 축소되고 염소, 양 등의 초식가축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축산의 실태는 생산구조가 집단화, 국유화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상의 차이로 생산의욕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교류의 부족으로 선진화된 사양기술의 도입이 부족하며, 심각한 식량사정으로 사료자원의 확보가 어렵다는데 있다.

북한의 축산업은 앞으로 농업 및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타국과의 합작투자나 선진기술 및 자본등의 도입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돼지공장, 닭공장 등의 기술 현대화와 사료생산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축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외면한 채 '자력갱생'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축산업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